

홍천군 → P → 222-4918

원고청탁서

박영숙선생님께

안녕하십니까.

광주일보사에서 발행하는 종합지 '월간 藝鄉'에 선생님의 글을 신고자 합니다.

바쁘시더라도 시간을 할애하시어 저희 지면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.

▲ 본 야: 「21세기에 떠돌은 희망의 메시지」 - 1월호 특집

▲ 청탁내용: 대년 1월호에 게재되는 글로서 각계 대표들(교원, 이영희, 마방수석등)의 21세기를 맞을 메시지가 담긴 글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 여성계 대표로써 여성의 21세기인 21세기를 맞아 '여성이 21세기를 내아가는다'는 내용을 주로 여성들의 현실 제고와 희망사항, 여성 3% 분배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촉구 하는 것이면 됩니다.

▲ 원 : 양: 200자 원고지 10매

▲ 마감 일: 1999년 12월 8일

▲ 사진: 언론 송신용, 움직임이 담긴 최근사진(1매)

※ 내용과 관계되는 사진이나 그림 등의 지료가 있으실 경우 보내주시면

너무 감사하겠습니다 (원하신다면 사료한일 반환해 드리겠습니다).

062-222-4918

* 참고사항 *

1. 순 한글로 쓰시되 필요한 한자는 괄호안에 넣어 주십시오.
2. 동선제목을 4~6매의 낱어로 지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
3. 교정하실 정도의 꼭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히하게 써 주십시오.
4. 지면 배설이 두 주 정도 앞! 라는 것이오니 원고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5. 원고실에 편사의 약어, 국민신문보호, 원고료 송부처(김복순·은행 윤리원)과 등)를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.
6. 연 락 지: 062-11-21518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1가 108호
광주일보사 원고과 "월간 藝鄉" 편집자
☎ (222)8111~8(교번 360~363)
FAX: (062) 224-2670

222-4918

담당: 박지현 차장

光州日報社

月刊 藝鄉

이 11-613-8500